

착한가격에 뛰어난 성능, 공간성 '3박자'... 첫 차로 딱이네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전고 1560mm, 축간거리 2700mm
낮지만 긴 길이로 공간성 갖춰

GM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 집약
신형 1.2L E-터보 프라임 엔진
외부소음 잡고, 실내 정숙성 ↑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출시한 차량 중 '최고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이다.

통상적으로 경쟁 모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상품을 보면 '싼 게 비지떡이다'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하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단순히 가격이 착하다는 것을 넘어 성능 면에서도 최고 점수를 주고 싶다. 한국지엠이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내놓은 차라는 느낌이 강

했다.

한국지엠이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한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행사를 통해 차량의 장단점을 확인했다. 시승은 킨텍스에서 파주까지 35km 구간을 주행하며 도심과 고속구간을 두루 경험했다. 시승차량은 중간 트림인 ACTIV을 선택했다.

우선 첫 인상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장점을 접목한 CUV 모델인 만큼 날렵하게 잘빠졌다는 느낌을

준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고(높이)는 1560mm로, 비슷한 크기의 현대자동차 소형 SUV '디올 뉴 코나'(1580mm)보다 30mm 낮았다. 높이는 낮지만, 전장은 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축간거리는 2700mm로 경쟁차종인 코나와 기아 셀토스보다 길고, 심지어 쉐보레 브랜드 내 상위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긴 길이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실내 공간성도 뛰어났다. 2열은 177cm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어 답답하지 않았다.

전면에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강인한 인상을 강조한다. 검은색 유광(블랙 하이글로시)과 크롬 소재를 적절히 사용해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웃도어에 특화된 ACT IV 트림은 그릴이 범퍼 하단부까지 연장돼 더 강렬한 느낌을 전해준다.

주행 성능은 만족스럽다. GM이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을 집약한 신형 1.2L E-터보 프라임 엔진은 예상보다 뛰어난 힘을 발휘했다. 제원상 최고출력은 139마력, 최대토크 22.4kg·m을 제공한다. 엔진은 GM이 오랜 기간 부익 등 여러 차종을 통해 검증한 GEN III 6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린다.

특히 고속구간에서 가속 반응은 운전자를 놀라게 했다. 차량이 없는 고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빠르게 치고 나갔다. 특히 고속 주행에도 엔진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2.0리터 가솔린 엔진이 아닌 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기능을 탑재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반대 특성을 가진 음파로 상쇄시켜 실내 정숙성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에 충신했다. 자체 내비게이션은 탑재하지 않았지만 11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6개 에어백과 힐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을 지원하는 차체 자세제어 시스템을 갖췄다. 스탑&고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한다.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면 차선을 유지하지만 현대차·기아의 스마트크루즈 컨트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GM의 슈퍼크루즈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복합연비는 L당 12.3km로 준수하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LS 2052만원, LT 2366만원, ACT IV 2681만원, RS 2739만원이다. 생애 첫 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꼭 한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경험한 뒤 결정하길 추천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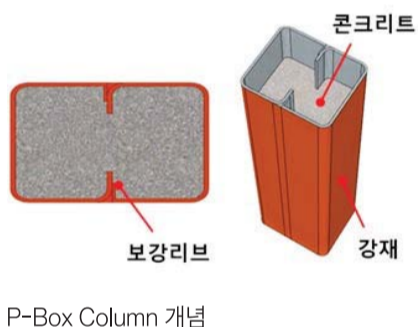
포스코, 합성기둥 공법 녹색기술 인증 획득

포스코이앤씨와 공동개발 이산화탄소 배출량 47% 감축

포스코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P-Box Column)에 대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 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평가기관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총괄) 외 7개의 부처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은 포스코의 고성능 강재를 냉간 성형하여 제작하는 합성기둥으로,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효과에 의해 압축강도를 2배 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P-Box Column 개념

해당 기술은 2019년 건설신기술 제868호로 지정되어 기술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은 공법으로, 이번 녹색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우수성 뿐만 아니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임을 입증 받았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을 적용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기둥(Reinforced Concrete Column) 대비 ▲폐기물량 약 53%, ▲폐기물 처리비용 약 59%,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47%를 각각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

관을 통해 확인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공법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간에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대체하여 더샵 천호 센트럴시티 외 3개 현장(강재 약 1900톤)에 시공했으며, 건축 분야 뿐만 아니라 플랜트, 인프라 등 타 분야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 정부가 추진중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저탄소 공법 개발 및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전반에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건축구조공법 분야에서 최초로 녹색기술을 취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사의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최근 GM이 주최한 '제 31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인포테인먼트 및 텔레매틱스 분야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돼 기념패를 수상하고 있다.

LG전자, GM '최우수 공급사' 선정

인포테인먼트·텔레매틱스 분야 물류난 속에서도 적기 공급 노력

LG전자가 GM 최우수 공급사로 인정 받았다.

LG전자는 최근 GM이 주최한 '제31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인포테인먼트 및 텔레매틱스 분야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GM은 매년 공급사 성과를 평가해 기술 혁신성과 품질 우수성 등 사업 성과에 기여한 회사를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하고 포상해왔다.

LG전자는 상품 경쟁력은 물론 물류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기에 공급하며 위기 극복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GM와 상하이 합작사인 상하이GM에서도 올해의 우수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는 6번에 걸쳐 GM 올해의 공급사에 선정된 바 있다. 2014년 처음 시작해 2016년과 2022년 '오버드라이브 상'을 2017년과 2020년에는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2006년부터 GM에 텔레매틱스 모듈을 공급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2016년 쉐보레 볼트EV에 핵심부품 11종 공급, 캐딜락에 '디지털 콕핏' 공급 등 혁신차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LG전자는 고객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사람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인 소프트웨어 기반 HMI 솔루션을 완성차 업체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혁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사업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터어라운드 성공한 바 있다. 축적된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80조 원을 상회하며 지속 확대 중이다.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담당 제프 모리슨(Jeff Morrison) 부사장은 "GM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혁신과 첨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올해의 공급사를 축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GM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최우수 협력사로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객가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다시 나는 이스타항공, 김포~제주 첫날 전편 만석 운항

3년 만에 상업 운항 재개 한정판 굿즈 제작·선물

이스타항공이 3월 26일 오전 6시 5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ZE205편을 시작으로 3년 만의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첫 편인 205편은 오전 7시 10분 경 김포공항을 이륙해 약 1시간 뒤인 8시 10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며 "운항 첫날인 이날 205편을 시작으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총 20편 전편이 26일 오전 기준 만석으로 판매 기간이 짧았음에도 완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6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전 편 탑승객에게 재운항을 기념해 제작한 한정판 굿즈를 선물로 증정한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하는 209편에는 이스타항공 조종석 대표와 경영진이 탑승 게이트를 찾아 승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타항공은 26일 하루 동안 총 12편의 가내 이벤트 편을 편성해 가내에서 승무원과 탑승객들이 간단한 게임과 이벤트를 즐기며 재운항을 축하한다. 이벤트 편은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 50

분에 출발하는 209편을 시작으로 211, 213, 217, 221, 223편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210, 214, 216, 220, 222, 224편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편성했다.

이스타항공은 3월 26부터 28일까지 김포와 제주를 하루 10회 왕복 운항하고 29일부터는 하루 12회로 운항편을 늘린다. 하루 12회 왕복 시 주당 168편을 운항하게 되며 주당 총 3만1752석의 좌석이 공급된다. 이어 4호기 도입 후 추가로 김포-제주 노선을 주당 186편까지 늘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